제338회국회
(임시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월7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
   -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관련
2.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제재 조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 ····· 2
   -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관련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27
2.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제재 조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 27
1. 현안보고(계속) ····· 27
   -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관련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두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각자 바쁘신 중에도 2016년 새해 우리 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몇 가지 이렇게 성과를 정리해 줬는데요, 오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생략하고, 아무튼 작년 한 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한민구 장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에도 우리 모두가 국가 안보와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올해 병신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고 또 총선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어제 오전 10시 30분경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진도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이어서 오후 12시 30분에는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수소탄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미 과거에도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국회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규탄 결의와 제재를 통해 핵실험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을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핵실험은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이번 핵실험은 그 이전과 달리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바에 의하면 그 파괴력이 일반 핵실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공할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위협은 이전 핵실험보다 더 크고 심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

늘 회의가 긴급히 소집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서만큼은 북한의 지속된 핵실험과 국제평화 위협행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장관으로부터 북의 이번 핵실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

1. 현안보고
-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관련

(10시10분)

○위원장 정두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정두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어제 오전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추가 핵실험 강행은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즉각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한 한편 전군에 경계태세를 격상시켰습니다.

또한 현 상황과 관련하여 한미 간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추가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일 현안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 및 대응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황을 평가해 보면 북한은 16년 1월 6일 10시 30분경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번 핵실험 장소는 우리 기상청이 발표한 진앙지 좌표로 볼 때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 북동쪽 2㎞ 지역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위치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 중입니다.

핵폭발 위력은 지진규모 4.8Mb 고려 시 TNT 약 6kT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차 핵실험 위력은 0.8kT, 2차 핵실험은 3~4kT, 3차 핵실험은 6~7kT이었습니다.

1·2·3차 핵실험은 모두 북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주변국에 통보 후 강행하였으나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은 언제든지 김정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이번 핵실험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지속 집중적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인해 임박징후는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소형화된 수소탄 실험 성공을 주장하였지만 3차 핵실험보다 위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핵실험의 성공·실패 여부와 핵물질 성분, 핵실험 방식 등에 대해 정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의도를 추정한 결과 북한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핵·경제 병진노선 실행을 김정은의 치적으로 과시하면서 내부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 유지에 반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공개하여 핵군축 협상과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강화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은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장관 주관하에 관련 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하였고 NSC 상임위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핵실험 평가 및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국회의 여야 지도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방부 입장을 언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국방부·합참 통합 위기관리 TF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북한의 전면전·국지도발 관련하여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언제든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미 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핵능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의 대비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민구 장관님이 발표하신 대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및 태세를 체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토대로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 시행, 작전수행체계 정립 등을 추진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초기에 억제 및 대응하는 데 필요한 우리 군의 킬체인, KAMD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핵실험, 북한의 예고가 전혀 없이 기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수소폭탄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전에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면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 11시 조금 넘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인춘 위원 11시 좀 넘어서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손인춘 위원 북한 방송 나오기 전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손인춘 위원 작년에 12월 10일 김정은은 개보수를 끝낸 평양 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성을 굳건히 지킬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리는 강대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뭐라 했냐 하면 '사실이 아니며 수사적인 표현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냈어요, 여기는 분명히 '강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핵수소탄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저 수사적인 표현으로, 그야말로 정보·첩보가 능력이 없는……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항상 다 완벽히 갖춰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업무 책임자들의 업무태만인지,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책임한 얘기인지, 그때 왜 이렇게 발표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작년 상반기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은 언제든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단기간의 준비 끝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손인춘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12월 10일 날 '강대국,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현장에 나가서 김정은이 발표했는데 우리는 '사실이 아니며 수사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 얘기하시라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답변드립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김정은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또 지금 4차 핵실험을 했지만 지금도 북한의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폭발 위력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징 등을 감안해서 낮은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손인춘 위원 그것은 이번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이번 지진규모가 3차 핵실험보다 사실 발표로 따지면 0.1% 차이가 나는데 그 0.1% 차이도 여기서 그냥 적다고 치부한다면 우리가 정말 정보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적은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수소폭탄 아니라

고 결정지을 수 있느냐고요.

제가 먼저 질문한 것은 12월 10일 김정은이 평양의 혁명사적지를 시찰했을 때 한 말을 한 거예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알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오늘 우리 조국은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리는 강대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뭐라 했냐 하면, 우리 당국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고요.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3차 핵실험 때보다 발표로 보면 0.1% 차이가 나요. 그런데 0.1%가 작은 지진 모습으로 우리가 수소폭탄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어떤 결론으로, 어떤 정보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우리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 핵실험의 경우도 북한이 새롭게 개발된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인춘 위원 장관님,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손인춘 위원 1차 핵실험을 2006년에 했어요. 맞지요?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으로 보면 10년이 넘었어요.

보통 세계적으로 과학에 근거해서 6~7년의 핵실험 기간이 넘으면 수소폭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수소폭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인춘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왜 북한에서 핵폭탄을 발사를 하든 연습을 하든 뭐를 하든, 훈련을 하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이런 문제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는 안 하고 항상 '그것은 미비하고 아직은 아니고'…… 아니,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수소폭탄을 안 갖고 있다고 결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누구나 핵폭탄을 연구·실험한 지 10년이 넘으면, 누구나 5~6년만 지나도 수소폭탄을 가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전문가들만 특별히 그렇지 않다, 아직 미비하다, 왜 자꾸 그렇게만 끌고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나……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그래요. 국방부나 합참이나 모든 기관에서 전혀 그게 아닐 것이다, 아직 미비하다, 아직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어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장회의에서. 그러면 제일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측 비상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에 중단했어요. 왜? 비정상적인 사태가 아니면.

그러면 이것 비정상적인 사태인데 어제 청와대에서 왜…… 확성기 빨리 해야지 언제까지나 우리는 대비태세가 완벽한데, 말만 '완벽한데' 하고 있고 확성기 언제 실시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옵션 중에서 대북 확성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확성기 방송도 그중에 저희들이 대응을……

○손인춘 위원 아니지요,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제일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고 북한이 제일 그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확성기 준비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다르게 또 얘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언제 하시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핵을 대비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군사적인 대책도 있고 경제적인 대책도 있고,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제재와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손인춘 위원 아니, 우리가 8월 25일 남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위급회담에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비정상적 사태가 아니면 다 중단하겠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태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은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위원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를 해 왔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조금만 주세요.

우리 국방부,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민간인 전문가, 다 기관에서 첩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다 각자 첩보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이 대단하다 주장만 하고 있고 사실 이 정보·첩보도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대응도 해야 되는데, 장관님은 계속 장관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닥치면서 우리는 전체 묶어서 정보를 잘 흡수해서 이것을 물리적인 대응까지 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청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우리는 정보 흡수, 사이버테러 준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사안을 국방부나 정부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사안을 중하게 보고 대응하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다만 수소폭탄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세계에 핵을 보유한 나라 중에서 수소폭탄을 6~7년 만에 확보한 나라도 있고 24년 걸린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을 잘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군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군기 위원 장관님, 아까 11시에 최초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11시 좀 넘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래서 청와대나 국방부 차원에서 시행한 프로세스는 이번에 만족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4차 핵실험은 예상되는 적의 도발 중의 하나였고 거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들을 국방부 차원 또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보기관에서 지난번 국감 때 한 달 전이면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확실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보면 북한 애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존 방법, 그것에 계속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당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저희들의 어떤 정보수집능력, 수단 이런 것들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대책도 충분히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통상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입구를 메꿀 흙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왕래하고 이런 징후를 가지고 핵실험이 임박해 있다고 우리가 예측을 기존까지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북한 애들은 그것이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만할 수 있는 방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 그것에 고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측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반성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군이 한미 연합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전략적인 목표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고정된 의식 속에서 정보활동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새롭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군기 위원 하여튼 예측이 잘못됐지요? 그것 보완해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군기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비정상적 상황 이것을 해서 확성기를 그때 되면 재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감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했느냐?' 하니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매뉴얼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비정상적인 사태는 적대의 지와 행위가 입증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견되며 우리나라에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우리들이 적의 불법성, 의도성, 피해상황, 안보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그 개념을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핵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 중에 군사적인 방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아니, 확성기에 관한 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확성기도 그중 하나의 방책으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백군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인 차원, 우리 정부 차원,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대응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시기나 방법을……

○백군기 위원 어제 NSC에서 확성기 재개에 대한 논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제 NSC에서 특정한 방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나갑니다 하는 것들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확성기에 대한 재개 논의를 국방부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는 현재 그것도 가능한 방책 중의 하나로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대응 수준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자……

○백군기 위원 국민들한테 이 얘기가 그대로 가면 너무 속도가 느리고 대응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해서, 왜냐하면 여기도 그야말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미 동맹·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받는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국가적인, 군사적인 차원 또 정치·경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소형화된 수소탄 실험 성공을 주장했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소형화된 수소탄이라고 하면 지진 규모가 그 정도면 성공 여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형화된 것을 이번에 개발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북한이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발표를 하였는데 통상적인 핵무기의 개발·진화 이런 절차나 수준 등을 봤을 때 수소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그래서 장관님, 우리 다른 정보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유달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것은 자꾸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술적인 수준에서 적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백군기 위원 나는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하여튼 이번에도 이게 소형화된 수소폭탄이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군사적 큰 위협인데 자꾸 그게 아니고 실패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그리고 지금 KAMD나 킬체인은 장거리에 대비해서 있는데 저 사람들이 SLBM을 계속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KAMD나 킬체인이 정합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시는 것처럼 KAMD나 킬체인은 적의 지상기반 미사일에 대비한 개념으로 최초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SLBM을 개발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에 대한 대응

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가 SLBM에도 대응이 가능한 체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다른데, SLBM은 잠수함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후방지역까지 접근해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감시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계획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아무리 레이더 그것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수함을 잡을 만한 레이더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잠수함에 대한 대책은 또 다른 잠수함을 통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 것이고 군사적으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군기 위원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대책이 정말 미진하지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작년 SLBM 사출시험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전력증강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근 위원 장관님, 아직은 실험을 한 게 수폭인지 중폭 같은 핵분열탄인지 분석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수소폭탄이라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주는 위협이 어느 정도 변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같은 질량의 경우에 원자폭탄보다 100배 내지 1000배의 파괴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송영근 위원 아니, 그것으로 우리의 국방안보에 위협이 어느 정도 증대되느냐 이걸 듣고 싶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핵능력이 원자폭탄을 보유했을 때보다 100배 내지 1000배의 위력을 갖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분석 보면 북한이 6~7kt 이 정도의 핵을 하나 서울에 떨어뜨리면 몇십만 정도 피해 주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한 발이라면 서울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송영근 위원 엄청난 위협의 증대가 온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백군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좀 안이하게 자꾸 아니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국방부에서 이것을 대처하는 그 인식이 좀 안이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는 한 발이면 서울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짚어서 위협분석 다시 하시고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 국방부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의 북한의 핵실험 추정 의도 보니까 대내 내부 체제 결속, 대남 국민의 불안감 조성과 대북정책 전환 압박, 대외적으로는 핵군축 협상과 평화협정 체결 공세 강화 이런 식으로 대내·대남·대외 분석을 해 놨는데 이것 전체를 꿰뚫으면 정권 유지 및 안정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김정은 정권의 유지 및 안정을 위해서 핵실험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위협이 증대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제까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해서 남북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한다 하는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나왔으면 대북정책의 기조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체제를 위협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체제 흔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하려는 이런 것보다 이제는 북한의 체제를 흔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잘 참조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참조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선 저는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틀이 있는데 제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봐서……

○송영근 위원 물론 장관님께서 얘기하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어야 돼요. 발등에 위협이 떨어져야 쟤들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엊그제 대통령께서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다.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안전보장회의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말씀하셨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상태라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따라야 돼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은 중국이나 미국과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게 심리전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송영근 위원 지난번에는 대북 전선에 확성기 몇 대 틀었더니 북한이 흔들렸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단, 삐라 갖다가 평양에 뿌려서 김정은 앞마당에 삐라 떨어지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물포작전, 달러 같은 것 달고 북한이 하는 생필품 달아서 그냥 북한에 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해야 '어? 이것 진짜 체제 흔들리는구나' 하고 그래서 우리의 '핵 다시 하라' 이런 요구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지금처럼 '규탄한다. 우려를 표명한다' 이것 수십 년 동안 해서 북한 수소폭탄 만드는 것 이제까지 이끌어 왔잖아요. 맨날 우려하고 규탄만 해 왔지요?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 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국방부로서 '확성기 방송에 추가해서 전단, 물포작전 이것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북 심리전 문제는 종합적인 대응책 중의 하나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유념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지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다임(DIME)조치 해서 외교적 조치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할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정보, 아까 정보체제 강화했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밀리터리 군사적 조치, 그다음에 경제적 조치는 저쪽 다른 데서 할 일이고 장관은 정보와 군사적 조치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한 건의는 있어야지요. 물론 결심은 대통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건의도 못 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민구 장관님을 대단히 듬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지요? 그렇게 건의해 주셔야 '아,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 참 믿을 만하다' 하고 국민들이 국방을 믿게 될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군사적인 대책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송영근 위원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십사……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위원 장관님, 아까 보고에 은밀한 준비활동 때문에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문재인 위원 그런데 원래 핵실험은 은밀하게 하는 거지요. 도발이라는 게 은밀하게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적은 은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파악해 내는 것이 우리 정부 능력이지요.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다, 그것이 변명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의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재인 위원 그래요.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우리가 사전에 탐지도 못하고, 아무 대책 없이 당하고, 북한에 뒤통수 맞기 일쑤고, 이런 정부의 안보 무능 때문에 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이번에는 사전에 아무런 징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북한 스스로 수소폭탄을 김정은이 공언을 해 왔고, 그렇지요? 또 김정은 생일 앞두고 있고, 또 금년에 7차 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이런 큰일들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뭔가 이렇게 저질러 왔다, 그런 것 우리 과거의 경험들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거기에

서 11월 28일하고 12월 12일의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통상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움직임들, 갱도 공사라든지 중장비 이동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됐다 이렇게 보도도 됐어요. 그런데도 '은밀하게 준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면피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정보야말로 군의 말하자면 기본인데 이런 정보 능력의 부재에 대해서 군을 책임지는, 통수하시는 분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 정기국회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핵실험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전에, 미사일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일주일 전이면 우리가 사전 징후들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한 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그 정도는 사전에 탐지할 능력이 있으니 안보에 대해서 너무 걱정마시라, 그렇게 답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은밀해서 몰랐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에 못지않게 더 확실하게 안보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38노스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군 정보 수준 또 미군의 정보 수준, 그 연합 정보 수준이 어떻게 38노스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정밀하고 수준 높게 이러한 전략목표들을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국감 때 정보본부장이 답변드린 사항은……

○문재인 위원 사과부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일반적인 그러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미 정보당국이 이러한 정보 평가나 판단하는 방법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시킬 여지, 노력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위원 저는 장관께서 우리 정보 능력의 부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우리의 정보 능력에 뭐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정보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끔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예산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야지요.

지금은 처음 핵실험하고 다르게 핵실험 장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풍계리. 갱도 위치도 1갱도, 2갱도, 3갱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만 딱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 왜 사전에 파악을 못 합니까?

우리가 정밀한 위성사진들을 보기는 봅니까? 평소에 정밀한 위성사진들을 우리가 제공받아서 매일 분석을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매일 합니다.

○문재인 위원 그런데 왜 못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방식……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군……

○문재인 위원 잠시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미가 공동으로 보는 것인데 그러한 정황들을 핵실험이라고 단정 짓는 그런 판단들이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판단관들이.

○문재인 위원 북핵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핵탄두도 갈수록 소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이 수소탄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갈수록 북한 핵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의 부족한 부분들을 솔직히 털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고 정부에,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의하시고요.

지금 장관께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북핵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한반도에 핵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고 소형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 언제까지 이런 입장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핵능력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까지 북핵의 비핵화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제적인 그러한 틀 속에서 비핵화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좀 더 실효성을 거두도록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위원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이렇게 8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그것으로 북핵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북핵을 막기는커녕 갈수록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북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을 외교적으로 설득도 해 내야 되는데 제재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북한에 대해서 6자회담 재개 같은 이런 제재와 함께 다자외교를 통한 해법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제재와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그러한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지요.

이번에 북한 핵실험이 나오니까 또 다시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그것이 해법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당, 그것도 지도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그러한 대책이라고 정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쐐기를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한 다양한 주장을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위원 어쨌든 국민들이 안보에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근본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劉承旼 委員 장관님, 방금 나온 질문에 한 번 더 거듭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劉承旼 委員 정부의 입장은 우리 군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劉承旼 委員 비핵화라는 게 핵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반대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핵무기의 생산이라든지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임에는 분명한데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劉承旼 委員 우리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는 반대인데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핵우산이라는 것은 북한이 우리한테 핵무기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소위 억제시키고, 필요시는 이렇게 다양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劉承旼 委員 일단 공격을 당하면 그러면 당연히…… 핵우산이라는 게 공포의 균형이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劉承旼 委員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것도 반대고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도 반대지만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이 알아서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해 주는 그게 지금 현재 입장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전략의 기본 명제가 공포의 균형 유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춤형 확장억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억제하고 대비한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제가 오랫동안 묻던 질문을 또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북한이 얼마나 보유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플루토늄은 40여kg 또……

○劉承旼 委員 고농축우라늄은?

○국방부장관 한민구 고농축우라늄은 확보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劉承旼 委員 확보하는 단계라는 것은 보유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한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劉承旼 委員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보유량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 하는 것입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다, 플루토늄은 40kg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고농축우라늄은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게 특정하기가 제한된다 하는 것입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이번에 삼중수소, 중수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문가들은 삼중수소나 중수소를 북한이 확보했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劉承旼 委員 확인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수소폭탄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입니다.

○劉承旼 委員 그런데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에 대한 장관님의 말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건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劉承旼 委員 그런데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계속 그렇게 답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인하는 것은 제한된다 하는 것입니다.

○劉承旼 委員 알겠습니다.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네 번째까지 핵실험을 했는데 핵무기의 어떤 성능을 고도화한다든지 소형화한다든지 하는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실전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劉承旼 委員 2012년에 3차 핵실험 했을 때는 마치 실전 배치한 것 같이 당시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오히려 거꾸로 후퇴되는 답변을 하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2006년, 2009년, 2013년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이번에 4차 핵실험을 했는데 핵무기를 실천 배치했다든지 하는 것을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바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이번에 핵실험도 우리가 임박 징후를 모르고, 결국 몰랐다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 실전 배치를 했으면 실전 배치한 핵무기를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가지고 야밤에 북한 어딘가에서 남한을 향해 쏘면 쏠 때까지 당연히 모르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파괴하거나 교란하기 위해서……

○劉承旼 委員 그러니까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핵실험도 모르는데 북한이 야밤에 어디 산에 숨어 가지고 TEL(이동식발사대)에 핵무기를,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쏘면 당연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예상되는 미사일 발사 지점에 대해서 정보당국이 정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킬체인이나 KAMD 체계를 확보……

○劉承旼 委員 킬체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킬체인이나 KAMD에 대한 우리 계획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2020년대 초반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가속화해야 될 필요성을……

○劉承旼 委員 2020년대 초반이라는 것, 그것은 희망 섞인 관측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년도에도 KAMD 능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SM3나 사드나 이런 것 도입을 포함해서 MD 체계를 완전히 새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노력은 전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이러한 적의 위협 양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계획을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검토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노력들은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劉承旼 委員 저는 심각하게 KAMD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4차 핵실험 내지는 수소탄 실험이 8월 25일 합의 3항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비정상 사태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비정상 사태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로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劉承旼 委員 그러니까……

조금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사태기 때문에 8월 25일 합의문의 3항은 당연히 폐기가 된 거고, 그러면 그냥…… 트리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냥 자동으로 오늘부터 당장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뭘 가지고 종합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합의의 위반이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그냥 확성기 재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 재개를? 그게 합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劉承旼 委員 그 당연한 걸 왜 자꾸 재량적으로 판단을 하시냐 이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전략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劉承旼 委員 저도 확성기 방송이…… 북한은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확성기 스피커 트는 것 정도가 충분한 대응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이것은 8월 25일 합의문 3항의 위반이고 위반했으면 그 즉시 발효가 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거듭 답변드리지만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劉承旼 委員 아니, 국회에 와 가지고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래 놓고 오늘 국방위 끝나면 이제 아무런 조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군사적인 옵션만 해도 여러 가지 옵션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군사적인 옵션이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현재까지 된 것은 경계태세 강화, 대비태세의 격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또 전략자산의 전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기존에 안 하던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대비태세와 여러 가지 북한의 도

발에 상응하는, 억제를 위한 또는 응징 차원의 그러한 옵션들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劉承旼 委員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장관님, 저도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작년 8월 25일 이후에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그것을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그러면 매뉴얼을 왜 만들지요? 상황이 발생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만들어 놓고 상황이 발생했는데 또 검토한다 그러면 매뉴얼은 필요 없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문제는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선 지역에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기초로 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핵실험 문제와 같은 전략적 수준의 도발에 대한 적용 문제는 종합적인 또 전략적인 그런 관점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종합적인 적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국방위가 공개되고 있잖아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느낄 때는 '아, 확성기 방송 재개도 되게 고민하고 있구나, 꺼리는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고민하거나……

○위원장 정두언 그런데 장관님 답변 수준은 굉장히 고려, 고민하고 하는 답변이지만,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답변을 한 거라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야, 그렇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저렇게 망설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꺼려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북핵 실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중에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이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다음에는 진성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안이한 상황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1월 3일자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풍계리에서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핵융합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보고서를 냈고, 또 영변 5MWe 원자로 옆에 신축된 건물에서 이른바 중수소 또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를 이미 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그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정부는 매우 안이하게 다룬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결과론을 놓고 보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화생방사령부도 저희 국방부 예하 부대이고 다 정보를 종합하는 부서인데……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임박 징후, 경보 수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안 했다는 것이고,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미군 정보당국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징후 판단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미국을 끌어들일 것 없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우리니까요, 우리가 더 민감하게 봐야 되지요. 이를테면 38노스 같은 민간 연구기관들도 핵실험 준비 징후가 있다고 하는 점을 진즉부터 보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예의 주시하지 못하고 흘려버렸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장관께서도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정보 판단, 수집뿐만 아니라 정보 판단의 민감성을 더 높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지금 정부는 어쨌든 그 폭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소탄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후에 더 분석을 해 봐야 그게 수소탄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정확

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수소탄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핵실험 이후에 나타나는 공기 중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집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분명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북한이 이번까지 네 번째 핵실험을 했는데 1차·2차 핵폭탄은 플루토늄을 이용한 탄이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성준 위원 3차 핵실험은 무엇을 이용한 것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 차원에서 확인한 바는 제한됩니다.

○진성준 위원 판별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성준 위원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대기 중의 방사능 물질들을 채집하는 데 실패해서 판별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3차 핵실험에 사용된 핵폭탄의 종류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4차 핵실험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른바 수소폭탄이든 증폭핵분열탄이든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헬륨이라고 하는 가스가 나오는데 이 헬륨은 포집할 방법이 별로 없다, 이게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수로 수소폭탄인지 아니면 증폭핵분열탄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의 핵분열탄인지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전문가가 좀 답변해 보세요.

기술적 가능성이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합참 전략정보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대면해서……

○진성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수소폭탄인지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과학적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있어요?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밀사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집된 원소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핵실험이 어떤 종류인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요?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그런데 기술적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됩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수소폭탄의 경우에 특별하게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을 채집하면 판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럼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대기 중의 물질들을 채집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성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판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이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짧은 시간이 될수록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진성준 위원 어려워지는 거지요.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예, 어려워지나 그렇지만 존재 여부라든지 기준이 또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핵물질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면해서……

○진성준 위원 그것은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습

니까?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누차 지적된 문제입니다마는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가 모르고 당했는데 하물며 핵실험도 그런 것을 미사일 발사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다면 킬체인 시스템이든 무엇이든 무력화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모든 것을 사전에 다 포착을 해서 격파를 하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병법에서 얘기한다면 선지선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체계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성준 위원 아니, 그래서 북한이……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예.

○진성준 위원 북한이 이렇게 은밀하게 핵실험을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공격하려는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투발의 경우에는 얼마나 은밀하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들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물론 최소한의 조치로서 킬체인 시스템이든 이런 것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보다 힘을 넣어야 될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도록 해야 된다, 저는 돈을 주고 사서라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전략적 균형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적의 군사적 능력을 군사적 방법으로만 대응한다는 것은 제한이 있다, 그래서 다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성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철호 위원 장관님, 어제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홍철호 위원 우리 정보자산으로 어쨌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보자산으로 집중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의 척도로 봤을 때 핵실험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평가가 제한되는 수준이었다……

○홍철호 위원 이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해서 발사하는 것을 예측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이런 실험하는 것을 찾아내는, 미리 예측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 이 문제는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실험을 했던 곳에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해서 실험장소를 만들어 놓고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결정적인 장치만 하는 것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제한됩니다.

○홍철호 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를 좀 하는 편이고요.

국방부·국정원·NSC 어디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의 최종적인 확인을 하고 판정을 하는 기관인가요? 국방부입니까, 아니면 국정원입니까, NSC입니까?

정보자산들이 모여 올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나 국정원은 나름대로의 정보능력들을 가지고 자체 판단을 하는 것이고, 특히 국방부는 한미가 같이 공동으로 상황평가를 매일매일 하면서 시인하는,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계를 NSC나 이런 기구는……

○홍철호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예컨대 이 문제를 자꾸 일부에서 왜 미리 몰랐느냐를 가지고 추궁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추궁을 당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누가 책임자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보수단을 활용하는 부서는 다……

○홍철호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기관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책임의 문제에서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고 본다면 정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다 기본적인 판단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홍철호 위원 42.195 마라톤인데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가 들어서고 나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뛰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점을, 골인 지점까지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어디까지 왔을까요? 얼마나 더 가면 골인할까요? 그냥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미리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알면 더 좋지요.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한·미·일 공조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와 상관없이 가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우리는 골인 지점 갈 동안 기다려 줄 것인가, 안 될 것이다, 기술적 능력이 안 될 것이다 여기에 의지, 그것만 믿고 가야 되는 건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목표는 핵능력을 고도화해서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어느 경우가 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 또 우리 정부 차원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철호 위원 제 질문에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답변이 제한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쪽은 뭐든지 다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 답변합니까? 그것이 사실 어려운 점은 인정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지금 저 사람들 중도에 이것 포기하겠습니까? 그럼 어느 시점 정도에서 이것은 우리가 중지시킬 거냐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우리 군의 목표 여쭤 봤더니 장관님께서 분명하게 '전쟁 억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바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제가 그 당시에 드리고 또 홍 위원님께서 보충적인 말씀이 있었는데 군의 존재 의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승리하는 것인데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우리는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억제하는 방법이 아니고 수비하는 방법이거든요. KAMD도 그렇고 킬체인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어찌 보면 저쪽에서 공격할 것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유승민 위원님이나 송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뭔가 이제는 변화해야 될 지점까지 왔다, 그것의 타이밍이 지금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4차 핵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 또 한일 한중 계속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 공조체제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쯤 돼서 아예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핵 배치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만이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일정, 핵개발에 대한 일정, 필요 없다는 것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제가 군사적인 차원에 한정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군사력이 적의 군사력에 대해서 역비대칭, 도약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력 건설 또는 군사력 운용 개념을 전반적으로 혁신하자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홍철호 위원 우리는 지금 국제협약·규약 지키려고 핵개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히 아시는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저쪽은 핵을 가지려고 그러고 언젠가는 가질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것 쏘면 막겠다는 얘기만 한다는 게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세냐, 자꾸 이렇게 걱정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선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도 핵이라는 명확한 화력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걱정·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 저는 경기도 파주의 국회의원입니다. 접경 지역이지요. 하여튼 남북 간의 평화가 더 절실한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는 문제의식이 남다릅니다. 북에 대한 분노도 남다릅니다.

이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더욱더 깊은 고립과 압박에 북한이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정부질문 2014년 11월 3일 그리고 2015년 2월 25일 그리고 상임위 질문에서 장관님께 2016년 초에 제4차 핵실험 도발이지요, 그것이 예견된다고 질문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장관님이 조금은 안이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항상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등은 준비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비한다는 인식으로 일해 왔습니다.

○윤후덕 위원 오늘 보고서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상단에 "이번 핵실험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지속·집중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은밀한 준비 활동으로 인해 임박 징후는 포착할 수 없었음."……

직전까지 또 실험을 한 10시 30분에도, 그 사전·사후에 다 우리의 첩보자산이나 정보자산은 가동되고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어제 차관께서 우리 당 대표께 보고드릴 때 오전 직전까지 차량 이동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보고를 해 줬어요. 그러면 실험을 한 10시 30분에도 우리의 첩보자산이 그 지점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전후해서 활동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10시 30분 전후해서 우리와 미국의 첩보자산이 그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일부 증언에 의하면 차량 이동까지 감지된 상태였지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마는 그러한 우리 정보자산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아까 문재인 우리 당 대표가 질문할 때 장관님 답변에서도 "매일 합니다. 단독이 아니고 한미 간 공동으로 보는 것인데 정황들이 있었는데 이날도……" 그런데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10시 30분 전후로 다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몇 가지 징후는 혹 있었는데, 트럭이 움직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핵실험이라는 판단은 못 했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징후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척도로 비추어 봤을 때 핵실험이 임박했다든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제한되었다, 그런 저수준의 활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저수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서 핵실험이라는 결정적 판단은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이 강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10시 30분 전후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너무 실망을 해요.

자, 일부 언론에 위성의 사각시간대가 있어서 실제 핵실험 도발을 한 시점에서는 위성의 사각시간이었다고 하는 보도들이 있어요. 실제 이 지점, 풍계리에 우리 첩보자산이나 미군 첩보자산의 사각시간대가 존재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정보자산의 활동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제한이 있고, 다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사각시간대가 없다는 게 맞는 얘기고, 앞서 장관님의 답변은 전후로 다 보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뉴스 같은 것 보면 핵폭탄 실험을 하면 지반이 푹 꺼진다든지 이런 지형의 변화는 포착이 됐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과거의 다른 사례를 보여 주는 것이고, 이번 경우는 지진의 규모로 우리가 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땅의 흔들림 정도를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무슨 지형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

이 있다고 봅니다.

○윤후덕 위원 제한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개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지하 심부에서 그러한 실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른 현상일 거다 하는 것이지요.

○윤후덕 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핵실험 장소를 확인하고 핵실험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기상청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장관님이 전후좌우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한미 간의 군사위성이나 첩보자산, 정보자산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동이 안 됐다는 것을, 오히려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거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을 감시하는 그러한 기구가, 지진의 규모를 가장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질자원연구소 기관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예를 들면 전방에서 여러 가지 해 놓는 그러한 수집자산들도 있는데 그런 데도 다 파악을 하는 것이지요. 권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일단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전후로 한미 간의 첩보자산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조그만 징후는 있었지만 핵실험으로 판단하기는 저급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답변 준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아까 윤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인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자, 어제 정보위에서 국정원장께서는 "우리가 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다 그래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서 경계 실패 또는 정보 실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인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실패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윤후덕 위원 국정원장은 '우리가 졌다'라고 솔직하게 시인을 했는데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정원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분발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가 한 분 계셨지요?

이번 실험한……

30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실험 도발을 한 폭탄을 북한이 "소형화된 수소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태여 '소형화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수소폭탄은 아닐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가능하다면 증폭핵분열탄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증폭핵분열탄이라 하더라도 이것의 기폭장치는 원자폭탄이지요?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증폭핵분열탄이라고 규명되면 원자폭탄을 시험으로 수소폭탄의 기폭제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뭔가 만들어 놨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폭핵분열탄이라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융합을 격발장치로 해 가지고 분열탄을 터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융합 단계를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원론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증거는 지금 현재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증거에 기반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굉장히 제한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추가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올 때는 대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분석이 나오면 대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호 위원 지금 실제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북한의 풍계리 지역에 대해서 인공위성 그리고 우리 정찰기, 이와 같은 감시수단이 실제로는 비행하는 시간이 있고, 그 사이의 공백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한기호 위원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24시간 공백 없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군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인공위성이 거기를 볼 수도 없고, 우리 정찰기가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텀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의 정찰기가 뜨든가 인공위성이 실제로 감시하는 기간 동안은 북한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서 그런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24시간 공백 없이 어느 한 지점을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라는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한미 공조만 되면 완전한 정보가…… 24시간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물론 기상청에서도 분석을 하지만 지진파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독자적인 국방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지진파를 보고서 이것이 핵실험에서 무슨 단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기상청에서는 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어요, 전문성이.

그러면 왜 지금까지, 4차까지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 근 10년 오는 동안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방에서 적의 핵실험에 대한 지진파를 분석할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군에서도 그런 적의 핵실험 활동 또 지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러한 수단들에 의해 수립된 그런 것들도 이번에 다 종합적인 분석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 하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노력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국방부가 기상청의 발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우리 국방의 능력 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부 스스로 수단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발표해야지, 기상청에 의존하는 모습을 또 보인다면 국민들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수소폭탄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증폭핵분열탄이라고 하는 것도 북한이 수소폭탄으로 폭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단계 중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지 그냥 아니라고 부정만 하는 것은 이것도 또 국민에 대한 오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보인 태도로 봤을 때…… 수소폭탄이라고 북한이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최초의 단계든 기초 단계든 단계의 수소폭탄을 하기 위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들어가야지, 수소폭탄이 아니다라고 부정만 해서는 국민들이 또 이것도 용납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항간에서는 우리가 한미 핵확장억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게 성공적이냐? 일단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로 봐서 미국이 IS에 대한 대응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여와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도 또 나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먼저 수소폭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가용한 우리의 정보 판단의 결과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의 개념은 이미 증폭분열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소폭탄으로 진화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미 핵억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패라고 동의는 드릴 수 없고, 다만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파악을 하는 것은 일본에 의존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편서풍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일본하고 정부 협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일본하고도 정보교류·협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추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미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이번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타결을 봤기 때문에 군사 교류, 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강도를 높여 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또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매뉴얼 매뉴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사실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매뉴얼이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도 국민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뭐 검토하겠다, 종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매뉴얼이 없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또 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떠한 사안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1분만 주세요, 1분만.

○위원장 정두언 예.

○한기호 위원 그럼 이제 응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핵 보유에 대해서는 한미공조라면 전술핵이라도 보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반대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술핵이라도 보유한다는 것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번에 확성기나 물포작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 남북 민간교류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남북 민간교류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단해야 되고. 또 개성공단도 철수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개성공단에 가서 북한에 이익을 계속 주고 있으면서도 이걸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아까 유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사드(THAAD)와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군사 차원의 대응조치 또 외교, 대북정책 차원의 대응조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응수단에 대해서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가 이행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번에 개성공단은 반드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제가 또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때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그동안 국방위를 4년 하면서 들었던 많은 것들이 어제 있었던 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잃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이 장담해 왔고 호언해 왔던 것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군사정보협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 측을 통해서는 미국 정보기관도 그렇고 연합사령관도 그렇고 사전에 아무것도 징후를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이지 않

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광진 위원 그러면 일본을 통해서는 어떤 정보를 얻은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 일본이……

○김광진 위원 그러면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도 사전에……

○김광진 위원 내용을 아는 게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징후를 알고 있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정보본부장이 지난 9월 10일 날 국감 때 '핵은 30일 전 그리고 미사일은 일주일 전이면 알 수 있다' 이 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방금 장관이 '일반적인 수준일 때는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의 일이 일반적인 수준의 상황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답변에 정보본부장 당시 답변을 보면 위원님의 질문에 '콕 찍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런 답변을 드렸어요.

○김광진 위원 뒤에 신임 정보본부장님, 지금 정보본부에 매뉴얼이 있지요? D-25일에는 어떻게 감지되고 15일에는 어떻게 감지되고 5일 전에는 어떻게 감지된다, 이 매뉴얼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그랬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광진 위원 그렇지요?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예.

○김광진 위원 그 매뉴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변동이 없지요?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다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지금도 그러면 25일, 15일 전, 5일 전, 1일 전 우리의 매뉴얼상에는 하나라도 발견된 게 있습니까?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이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광진 위원 없지요?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예.

○김광진 위원 앉으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방식이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갱도를 새로 만든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더더욱 은폐되거나 더더욱 안에서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30일 전은 고사하고 며칠 전에라도 이것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매뉴얼이 1·2·3차 핵실험에 대한 그러한 결과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개선·발전시킬 분야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광진 위원 아까 1차·2차는 플루토늄인 것을 확인했고 3차는 우라늄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뒤의 전략정보부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답을 알고 있다 하셨는데 장관은 3차인 것이 플루토늄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셨습니까, 장관의 입장으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김광진 위원 아니, 여러 정보를 수집해 봤을 때 군의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난 건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김광진 위원 아직도 그냥 추정으로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렇다라고 확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 하는 것입니다.

○김광진 위원 그러면 고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보유량 자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또 안 맞는 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제논 검출이 3차 때는 실패했는데 또 이것을 미국과 해 가지고 WC-135를 띄워서 확인하겠다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한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그러면 이 135는 지금 오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출발을 했는지 확인 안 했는데 대개 1 내지 4일 동안에 그것을 포집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전력 등이 지금 나가서 수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아까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민들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봐서 그렇기도 하고 위성이라는 것이 꼭 어떤 지점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풍계리 지역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루에 몇 번 컷 찍을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몇 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되고 위성이 다 정지위성이 아닌 궤도위성은 재방문 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 이렇게……

○김광진 위원 그 숫자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아주 적은 숫자 아닙니까, 숫자를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인데 풍계리라고 하는 아주 고정되어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전혀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동식 발사체 등을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한다고 하는 것들은 실제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킬체인이나 KAMD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무력화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성에 의한 정보수집이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위 재방문 위성의 숫자와 그러한 재방문 주기에 따라서 교차해서 대상 지역에……

○김광진 위원 그러니까 위성의 숫자와 재방문 주기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저도 어제, 저도 정보위도 겸임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실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체인 같은 것을 하면서도 거기에 우리의 그러한 관련되는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진 위원 북한이 예를 들면 여기에 핵을 담아서 우리로 쐈다 하면 도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0분도 안 걸리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이냐에 따라서 수십 분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런데 지금 30분에, 10시 반에 북한이 이것을 핵실험을 했고 우리가 기상청이 늦게 와 가지고 군이 인지한 게 몇 분 걸렸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게 과거의 경우에 보면 한 20분 내에 통보가 됐거든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김광진 위원 결국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미사일을 쐈다고 하면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킬체인이나 KAMD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다시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주 단순한 지표로 봐도 진앙지에 대해서 국정원이 말하고 있는 것과 군이 말하고 있는 것과 기상청이 말하고 있는 좌표가 다르거든요. 작은 차이들이지만 공식발표를 정부가 할 때 이 3개 기관이, 어제 국정원 서류, 오늘 국방부 서류 그리고 기상청의 공식발표, 이 3개가 숫자가 다 달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정부기구가 하나로 통합해서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면 이게 4차 핵실험이냐, 1차 수소탄과 관련한 실험이냐라고 하는 논쟁에 있어서 우리는 '4차 핵실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광진 위원 그러면 소형화·경량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4차 핵폭탄, 수소탄이 아니고 그냥 핵폭탄 실험 4차라면 지난번에 3차 때 1㎏ 정도의 핵탄두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더 경량화된 실험이 성공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좀 더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보면 고도화·경량화를 지향했다고 보면 이것도 한 3년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경량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진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데 걸

리는 시간 때문에 미사일도 우리가 대응을 못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핵실험을 지진파를 통해서 확인해서 국방부까지 하는 시간이고 미사일 같은 것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궤적……

○김광진 위원 실시간으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실하게 증명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이것은 지진파를 확인해서 통보하고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미사일 대응은 저희들이 지금 갖는 체제로는 또 다른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근 실시간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김광진 위원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그것을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도 뻔히 바라보고 있는, 사실 개별 미사일 발사보다 풍계리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공간이 훨씬 더 위협적인 공간이고 예의주시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인데 그 고정형의 지역도 지금 실시간으로 제대로 못 본다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 줘 놓고는 미사일로 날아오는 것은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게 아니지요. 왜 아니냐 하면 핵실험은 지하에서 벌어지는 것을 지진파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해서 국방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고 미사일은 한미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대응 탐지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하면 거의 근 실시간으로 발사하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두 가지의 핵실험과 미사일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광진 위원 한 달 전이면 알 수 있다는 핵도 안 되는데 일주일 전에야 알 수 있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말에 대한 신뢰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다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러면 그것이 곧……

○김광진 위원 장관이 그동안 계속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핵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우리가 사전 징후에 의해서, 그것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셨는데 고정형인 이 지역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KAMD 같은 것 할 때 미사일을 발사하면 얼마 후에 우리가 추적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요격한다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 핵실험의 그것을 우리가 20분 걸렸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

○김광진 위원 그러면 요격하면 인지하는 거네요, 요격하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지요. 그러니까 최초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부터 탐지를 하고 추적해서 어느 정도에서 요격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광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시스템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그런데 그때 우리 송영근 위원님께서 KAMD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합참의장 답변은 '거기에 탑재된 게 핵인지 다른 화생방인지 뭔지 인식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합참의장님이 그게 문제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답변하고 상당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래서 저도 참 황당하게 들었는데요. 하여간 좋습니다.

다음,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찬 위원 장관님, 지금 이 시간이 단순히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장관님이 답변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북 핵실험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뭐며 정부의 의지는 뭐며 정부의 원칙은 뭐며 하는 것을 지금 국민들께 이해시키고 필요하면 납득시키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말 정확하고 명쾌한 이런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말이지요, 북한은 심각하고 중대한 핵도발을 하였는데, 핵실험을 하였는데 우리 정부는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상응한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기준과 또는 원칙이 상당히

모호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보본부장님.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잠깐 자리 비웠습니다.

○김성찬 위원 장관님, 어제 NSC에서 논의한 결과들이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어제 NSC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차원의 대응방안들에 대한 보고 토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찬 위원 오늘 외교부·통일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국방부 사안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보본부장님, 이렇게 사전에 알지 못했는데 정보본부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한미 간에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뭐가 부족합니까?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전반적으로 아까 매뉴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매뉴얼하고 징후목록 그다음에 일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적의 의도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발전방안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런 게 아니고 말이지요, 부족한 부분이 뭐다,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로 사과한다, 죄송하다, 이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뜬 구름 잡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앉으세요.

장관님, 그런 원칙과 비전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4차 핵실험을 적의 도발행위로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남북 간의 비정상적인 사태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

○김성찬 위원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것만……

○국방부장관 한민구 비정상적 사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지금은 안 보시는 거잖아요. 안 보시기 때문에 확성기 가동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이 안 보아서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김성찬 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만, 그게 국민들이 자꾸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이 남북 간에 도발을 또는 추가 도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은 다양하게 검토해 보니까 현 단계에서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국민들을 모호하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비정상적 사태로 안 보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비정상 사태로 안 봐서가 아니고……

○김성찬 위원 그러면 왜 그 확성기 안 틉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우리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효과가 가장 좋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과 함께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김성찬 위원 지금 장관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마나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것을 보고 추가 핵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겠습니까? 경계태세 격상하고 군사대비태세 높이고 한미연합훈련 하고 그것하고 사실 핵실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일상의 우리 군사활동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위협이다 하였는데도 심각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시행돼야 됩니다. 시계를 3년 전으로 한번 돌려 보시지요. 2013년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 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자, 4차 핵실험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부분의 매뉴얼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뭘 또 추가검토합니까? 개성공단? 이것은 안 한다 또는 한다 또는 풍선 날리기 안 한다, 한다, 확성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한다, 그것은 추가검토해서 나중에 한다, 이렇게 뭔가 돼야지 전부 다 추가검토예요. 이게 처음 생긴 1차 핵실험 상

황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하셔야지요. 매뉴얼이 뭡니까? 액션플랜 아닙니까? 왜 액션이 하나도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액션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한 옵션들을……

○김성찬 위원 아니, 군사적 문제 하자니까, 국방부 문제. 국방부 액션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중대한……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김성찬 위원 뭐 있습니까?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가 지금 그 절차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찬 위원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성찬 위원 그것은 이 핵실험하고 사실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게 통상적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수단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찬 위원 장관님, 그것은 너무 일상적인 겁니다. 군사대비태세 올리는 것은 북한 잠수함 한 척이 그냥 움직여도 올리는 것이고 대비태세는 사실 24시간 1년 내내 하여야 되는 것이고 한미군사훈련은 관계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핵실험이라는 이런 엄청난 도발을 하였는데 하는 게 고작 그거라면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원칙과 기준이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방부는 전략적 SC를 포함해서 그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방송을 재개할 준비는 돼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내일이라도 틀 겁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는 안 틉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부의 전체적인 대북제재와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선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방송은 재개 안 한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풍선도 전단도 살포하지 않고,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군사적 조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잖아요, 상응한. 대북경계태세하고 훈련하는 것은 상응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인 거지. 상응한 조치는, 군사적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맞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 해결에 또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시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장관님, KAMD 유승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것 진짜 정말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간적으로 아직 10년 후에 되는 이런 부분, 두 번째 10년 후에 되어도 그것이 구멍 난 우산이다, 이 구멍 난 우산에 뭐하려고 수조 원의 돈을 들이고 국민들께 그것을 가지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말이지요, 정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속화해야 될 일이 F-35 보라매사업이 아니고 KAMD든 북한의 핵에 대한 대비를 가속화시키는 게 장관님 하실 일입니다.

네 가지 핵심기술 못 온다니까 가속화를 당기겠다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방부 산하단체 ADD 또는 전 국가 역량을 동원하도록 하여 가속화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하여야 될 절대명제입니다.

장관님, 꼭 그런 부분을 우리 국무회의나 또는 총리 간담회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KAMD·킬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보완하고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다 지금까지 1·2·3차 북한의 핵실험을 보면서 우리 군이 나름대로 군 차원의 또는 정부 차원의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김성찬 위원 그 전문가들은 너무 나이브합니다. 지금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로 10년 후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것이 지금 소형화가 거의 되었는데 곧 무기화해서 쓸 수 있는, 야전에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이 2, 3년 안에 될 것 같은데. SLBM도 미 정보에 의하면 2년 후에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3년 후에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0년 기다립니까? 10년 후도 구멍 난 우산 아닙니까? 고도 50m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정말로 답답해 죽겠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들 하셨고요.

추가질의 다시 또……

○劉承旼 委員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두언 예, 말씀하세요.

○劉承旼 委員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이 오는 것 보면 내일 본회의 때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한다는데 오늘 외통위와 국방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통위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외통위 차원에서 하더라도 국방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규탄 결의안을 당연히 채택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2차 질의를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출석률이 100%는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끝내지 마시고 2차 질의를 위해서 저는 오찬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두언 예.

○윤후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 말씀에 야당인 우리 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에서 대표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셨고 우리 당에서 같이 하자는 의사결정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방식을 원래는 국방위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국방위 결의안으로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외통위에서 논의가 먼저 진행되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결정을 했을 때는 외통위가 오늘 안 열리는 걸로 알고 국방위에서 하기로 우리 당은 방침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에 외통위가 열린다고 했고 우리 당은 결의안을 외통위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의사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하에 규탄 결의안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리고 또 외통위안하고 같이 합쳐지는 그런 방식도 좋고 관련된 여러 상임위에서 공동의 규탄 결의안이 나오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劉承旼 委員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예, 말씀하십시오.

○劉承旼 委員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하고 2009년, 2013년 이렇게 핵실험이 있었는데 저도 외통위원회에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외통위원회의 문제의식은 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핵실험 이 문제는 핵무기 개발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원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 안 하면 그것은 저희 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외통위든 어디든 다른 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면 그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양당 원내대표가 그걸 협상을 해서 단일안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두언 말씀하세요.

○김성찬 위원 외통위는 외통위대로 하더라도 우리는 국방위 차원에서 해서 본회의에 또는 국회의장께 국회의 이름으로 규탄 결의안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방위 차원의 국방위 전체 의견으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위원회 전체의 이름으로 결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두언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준비를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회의는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는 게 좋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두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위원장 정두언 오전에 질의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2.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제재 조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위원장 정두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제재 조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가 북한의 이번 제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로 하여금 대내적으로는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위원장 그리고 양 교섭단체 대표위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의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承旼 委員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예.

○劉承旼 委員 주문의 세 번째 줄에 '북한 당국이 핵 보유를 통해'라고 하면서 핵 보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북한 당국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이렇게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두언 그러겠네요. 보유를 인정하면 안 돼.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아마 기타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정리해서 나중에……

○윤후덕 위원 제목을 조금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두언 제목을 지금 말씀하세요.

○윤후덕 위원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 정도로……

○김성찬 위원 제목으로 나쁘지 않네요.

○윤후덕 위원 예,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는 다 협의됐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위원 간 합의로 작성된 안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나중에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현안보고(계속)

-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관련

(13시49분)

○위원장 정두언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하 위원 경기도 파주시을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북한 핵실험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 북한 핵실험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미국이라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통보가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래 가지고 정보 협조와 우리의 정보 능력에 대해서 자꾸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장관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상당한 기간 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고 언제든지 결심만 있으면 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측해 왔습니다마는 금번 실험과 관련해서 임박한 징후를 한미 정보 당국 어느 측도 사실이라고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황진하 위원 확인을 못 한 것이 그냥 갱도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아주 은밀하게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왕래 같은 것이 의심스럽게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간헐적으로 차량이나 인원의 왕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임박한 핵실험의 징후로서 판단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황진하 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5차, 6차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핵실험의 준비 징후, 임박 징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척도를 과거 1, 2, 3차 핵실험을 기초로 해서 발전시켜 왔는데 이번 경우를 포함해서 그것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위원 얼마 전에 한민구 장관께서 저쪽 중국의 국방부장관하고 직통선, 핫라인을 해 놨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황진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무슨, 사전에는 어차피 중국도 모른 것처럼 나오니까 그 이후에라도 전화를 이용한 교신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우리 국방부가 미·일·중 3개국과 핫라인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미측과는 어제 22시 15분부터 한 30여 분간 관련 사항을 토의했고 중국 측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 여부 및 시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진하 위원 지금 국민들이 우리가 핵우산하에서 그것도 확장된 핵 억제 능력을 이용해서 북핵에 대비한다는 것이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대비태세가 그냥 말로만인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점점 더 북한이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더 안심할 수 있는 대책, 한미동맹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핵 억제 대책이 그냥 확장된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가 맞춤형 억제 전략에 입각해서 대응을 하는데 이번 핵실험과 관련하여 우리 한 측 자체의 군사적 대응방안 또 한미동맹의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그것은 상황의 발전추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가장 효과가 확실한 시점에 단계적으로 그러한 대안들을 시행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황진하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면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 때 분명히 해 놔야 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렇다 저렇다 내정 간섭적인 얘기를 절대 못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뜨뜻미지근하게 얘기를 하고 확실하게 북을 비핵화시키는 노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걸 이런 기회에 안 하면 나중에는 중국을 설득시키거나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조치를 이해시키는 데 어렵다, 이런 기회에 그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중국 외교부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단호한 입장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더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리고 한미 협의를 통해서 단순히 한국과 미국이 하는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게 한미동맹이 해내야지만 되는 대비태세 이것을 함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노력도 같이 하자, 이러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노력을 저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하 위원 그렇게 해서 차제에 중국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일본 간의 관계 속에서 북핵 저지라든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특히 중국에서 우리의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는 그러한 북한의 영향력이라든가, 뭐라 그럴까 미온적인 한반도 비핵화 노력,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분명히 꼬집고 우리의 주장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인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는 북한이 2020년 수소폭탄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핵 실험 없이도 2020년 이후에는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폭탄 제조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언제쯤이면 실전 배치할 것이고 또 수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수소폭탄을 한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손인춘 위원 예, 16일에 미국에서는 100개에 달하는 핵폭탄 제조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망을 했잖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38노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또는 다른 여러 연구자들이 북한 핵능력의 신장추세를 고려해서 평가하고 전망하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보다는 조금 앞장서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과거 5대 핵국의 경우에도 상당한 횟수의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실전 배치에 대한 예상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도 그것에 대해 상응하는 대비태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들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깊은 관심과 그에 따른 집중적인 감시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다.

12월 21일 동해 신포항 부근에서 북한의 SLBM 사출시험이 있었는데 당시 시험이 성공했고 핵 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기까지 1년이 걸릴 것이라는 미국 국방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외국 언론보도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5월 최초 사출시험 당시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SLBM 전력화가 앞으로 4~5년 걸릴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전망치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 관리들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7개월 만에 전력화시기가 1년으로 확 줄었는데 북한의 SLBM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와 닿거든요.

만약 북한이 1년 후에 SLBM 전력화에 성공을 거둔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는 장관님께서 보실 때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미국의 그러한 정부 관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정보당국이 같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것도 저희 단독이 아니고 같은 평가 속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보고, 지금도 여러 차례 계속 개발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면 미국에서 말하는 것은 그

렇게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다 아니면 검토를 했는데 정확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달 국방위원회에서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한미 정보자산을 다 합쳐도 SLBM의 이동식 발사대를 100% 막을 수 없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없다'고 말했어요, 사령부에서.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SLBM, 이동식 발사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다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핵 미사일 발사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 지금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특별히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작년도에 SLBM 사출시험이 있은 후에 저희들은 SLBM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조기 감시 탐지를 위한 감시레이더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들을 중기계획에 포함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요격이라든지 이런 대책들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발표한 것은 4~5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1년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건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을 집중해서라도 언제까지나…… 우리가 무슨 요구를 했을 때 안전하다, 이상 없다, 진행해 나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SLBM,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조속히, 우리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책임감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탁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저한테 문자로 질의 온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기상청에서 말한 진앙지를 좌표로 살펴보면 풍계리 핵 실험시설에서 20여㎞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군이 엉뚱한 곳 풍계리 갱도들을 감시하다 보니 징후를 놓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진앙지와 관련해서는 기상청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정원이나 저희나 오늘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풍계리의 2번 갱도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특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그러니까 20㎞나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직……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위원장 정두언 정확하지 않은 걸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군기 위원 장관님, 핵 실험을 하기 10분 전에 미국 정찰기가 오키나와에서 이륙했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군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 미 측하고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연합사령관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을 대화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 있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집어서 질의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우리 정보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보도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래서 미 측하고 정보에 대한 공유 이게 조금 허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탄저균 샘플문제도 처음 들어왔다 했는데 나중에 그 이전에 몇 차례 한 것으로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정보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느낌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오키나와에서 정찰기가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소스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이번 4차 핵 실험과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징후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원론적으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욱 긴밀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 핵 실험 때에도 그 비행기가 이륙한 기록이 있다고 정보에 의하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상당히 깊숙하게 이 얘기들이 다뤄지는데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위원 그다음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금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방 지휘관들이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을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액션으로 취하는데 단순하게 결정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돼 있으리라고 내가 확신하는데 이와 같이 조금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위원 그래서 핵에 대한 것은 엄청난 도발인데 최소한 우리 전방의 확성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핵 실험 보도가 된 후 바로 확성기 방송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은 유사시에 조치할 사항과 그 절차를 명시한 것이지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기에게 추가적인 임무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군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지 지휘관들이 그런 걸 준비해서 명령만 따르는 상태까지 유지가 됐다면 훈련이 잘 돼 있는 것이고, 대단히 잘 돼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위원 그다음에 킬체인과 KAMD에 대해서 근본적인, 아까 오전에 질문드릴 때 마치 킬체인은 레이더에 의해서 24시간 그러한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던데 그 답변에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물론 그게 날아와서 어느 지역에, 어느 상공에 도달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발사 직전부터 탐지가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미사일이 적 지역에서 발사되었을 때 발사된 이후는 거의 근 실시간으로 그것이 파악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고 경보하고 해 왔고요.

○백군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장관님이 나보다는 더 자세하게 아시겠지만 발사돼서 어느 정도 고도를 유지했을 때 레이더에 포착되지 발사 직후부터 그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그래서 만약 이동 발사대를 이용했을 때, 물론 그 지역이 고정이 돼 있어서 그 지역만 계속 감시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이동 발사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초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는 예측이 돼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사일의 경우도 사전에 징후를 확실하게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용능력이 있어도 그것의 완전성이 10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적어도 핵실험을 했다거나 또 미사일이 발사되었거나 한 이후에 그것을 추적해서 탐지해서 요격하는 이런 능력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백군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킬체인이 됐든 KAMD가 됐든 제가 볼 때는 허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가정을 해서 철저히 대비해야지 완벽하게 초기부터 잡아서 전부 추적해서 작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당연히 군은 여러 가지 무기체계나 시스템상의 그러한 완전성이 100% 보

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다 완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래서 킬체인이나 KAMD가 미사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런 정도의……

방어체계면 되는데 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더욱 완벽한 어떤 다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위원 장관님, 조금 아까 황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 위기상황이 왔을 때 위기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요 국가하고 핫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있지요? 한미 간, 한중 간…… 한일 간에도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한일 간도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래서 주요 국가하고 하여튼 크라이시스(crisis)가 왔을 때에 그것을 잘 조율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한미 간에는 대통령님을 포함해 가지고서는 장관님, 합참의장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송영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국도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언짢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 신문에 나오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송영근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이런 기회야말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중국 국방장관하고 장관님이 핫라인으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국민들이 그래도 더 안심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하고 핫라인을 가지고 창완취안 장관하고 통화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가지고 있었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보는 입장 또 그 문제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국만큼 바로 응해서 통화가 안 되고 지금 현재 그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이 점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의 군부에서 이 사람은 군정을 다루는 사람이지 군령은 전혀 관여를 안 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송영근 위원 중국의 국방부장은 군령은 전혀 다루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것 총참모부에서 하지,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송영근 위원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국방부장하고 통화했을 때 과연 국방부장이 마땅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물론 중국 군제의 특성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국방부로서는 총참모부하고 그렇게 상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중국이 국가체제상 국방부장이 군정을 주로 담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중국의 입장을 낸다는 경우에는 다 조율된 그런 입장을 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차차 발전시킬 것 같지만 합참의장과 저쪽의 총참모부장하고 이렇게 핫라인 같은 것을 다시 만든다든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송영근 위원 군정 분야와 군령 분야가 확실하게 구별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핫라인을 좀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조언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실무 협조회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국하고 평상시에 일련의, 어떤 차원의 협조회의를 하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중국과는 무슨 국방정책 담당자, 국장급의 한중 정책실무회의 같은 것도 하고요.

○송영근 위원 국장급,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예.

○송영근 위원 이것을 좀 높여서 이제는 실장이나 차관이나 한 단계, 차관이나 이런 단계로 좀 높여서 평상시에 자주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위기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더 차원 높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송영근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예를 들면 만약에 수소폭탄이 풍계리에서 실험했을 때에는 지금보다 만약에 1000배가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 잘못하다가…… 백두산 화산 폭발한 것이 언론지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아주 중국하고 공멸하는 거거든,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송영근 위원 이번에도 저쪽의 지린 그런 데에 상당한 지진파가 가 가지고서는 영향도 주고 그랬는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더 위력이 높은 핵실험을 하게 되고 그런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중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송영근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실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장관님의 영역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한중 간의 여러 가지 실무 채널 보면 차관급 대화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층화시켜서 좀 더 그것을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조금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예.

○송영근 위원 한마디로 그런 실무협조 회의하는 내용들이 바로 중국의 정책결정을 하는 군사지도부에 입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 질의하세요.

○진성준 위원 SLBM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SLBM 실험한 것이 12월 21일, 미국 보도가 맞다면 세 번째지요? 지난 5월, 작년 5월에 SLBM 사출실험에 성공했다고 하고 두 번째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세 번째 실험이 나왔는데 우리 군 당국도 파악하고 있는 사안입니까, 세 번째 실험?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정확한 것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디까지 확인이 되고 파악이 됐습니까? 이를테면 물 밖으로 사출은 성공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께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SLBM의 성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실 바인가 싶은데…… 위원장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저 혼자만 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SLBM은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국가가 3원 체제를 갖추는데 핵심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소폭탄과 더불어서 궁극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북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국방위원회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해서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그것은 다음 기회로 다시 잡아봅시다.

○진성준 위원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위원장 정두언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자세한 말씀…… 그러니까 물 밖으로 사출에 성공한 것은 1차 실험 때도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엔진이 점화됐는지, 점화됐다면 날아간 것은 어디까지 날아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로 빌려 말씀드리면 그런 SLBM의 성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성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핵 3원 체제를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성준 위원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은 개발하고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도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북한이 그동안에 동해상에서 중거리·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다탄두 실험으로 추정할 만한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우리 정보 관계자들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진성준 위원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핵능력을 갈수록 고도화시키고 있고 또 그것을 다양한 투발수단으로 위협화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순전히 KAMD 시스템이나 킬체인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전력 개발을 최소한 동결시키고, 더구나 핵무기는 장차 폐기까지를 목표로 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이렇게 전략적인 무기들의 개발 중단 또는 개발 포기와 같은 군축협상을 우리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평화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군축회담인 만큼 외교부나 무슨 통일부나 이런 데에다가 넘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방부가 주도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한편에서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쥐면서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방비책도 강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포기한 채 그냥 우리도 군사적인 대비태세만을 갖춘다고 하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북한이 그런 전력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차단할 명분 자체가 스스로 없어지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평화적인 주도권을 얻는 데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인 명분을 획득하는 데도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평화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일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다양화, 다중화라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면밀하게 추적하고 감시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럴 시도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면 타당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가장 중요한 북한 핵의 비핵화 문제가 한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우선적인 핵 문제와 함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축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책으로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때가 되면 시의적절하게 제기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마지막으로 유승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劉承旼 委員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분명히 규탄 결의안 채택할 때 배포된 초안에는 주문 2항에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최종안이라고 정리된 것을 보니까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초안이 배포가 되고 위원님들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의결이 된 건데 이렇게 빠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두언 예, 그렇게 하세요.

○劉承旼 委員 장관님, 오늘 NSC가 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계획돼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몇 시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15시에……

○劉承旼 委員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원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劉承旼 委員 원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劉承旼 委員 글쎄요,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네요.

장관님, 어제 4차 핵실험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는 핵 불감증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핵 불감증이 심각한 데는 저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핵실험을 했다고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평화로운 상태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이 핵 문제의 중차대함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劉承旼 委員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구체적인……

○劉承旼 委員 제가 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좀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劉承旼 委員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까 장관께서도 그런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셨는데 이번에 미사일방어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반적인 재검토라기보다 지금까지 제가 장관 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력증강계획의 최적화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전부 부문별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서는 최초에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죽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완요소를 식별하고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김성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사드 같은 문제는 중국하고 군사·외교적인 그런 마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드 같은 그런 문제는 4차 핵실험 직후인 지금 상황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적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劉承旼 委員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중국이든 누구든, 러시아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나 명분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나치고 놓쳐 버리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또 와 버린단 말이지요. 뭐 2년, 3년 또 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또 북한의 핵능력이 굉장히, 거의 실전배치의 수준으로 왔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리고 국방부 발표에 보면 한미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논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는 어떤 것들을 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가지 감시나 타격이나 그러한 능력들을 가진 자산들을 말합니다.

○劉承旼 委員 그게 한미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어제 핵실험 이후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조만간 그에 대한 결론이 한미 간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미 결론 난 부분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미 군사당국 간에, 합참과 연합사 간에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당초 결의안 초안에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러면 우리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개별 위원들의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통과되면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회에서 그런 것을 결의해 주시면 정부는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劉承旼 委員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승민 위원에 대한……

○윤후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이 결의안 초안에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구가 빠진 것은 여야 간 간사협의를 이 자리에서 했고 그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이 받아서 수정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그렇게 문구가, 자구가 조정됐다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劉承旼 委員 여야 간사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윤후덕 위원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실제.

○김성찬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의제기를 내가 하시라고 했잖아. 이의제기를 하셔야지.

○윤후덕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劉承旼 委員 여야 간사 합의를 했으면 합의된 초안을 주셔야지, 저희들한테 준 초안에 분명히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이 표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의결까지 했는데 그게 어떻게 최종 문안에서 빠질 수 있냐 이거지요.

○윤후덕 위원 저는 그렇게……

○김성찬 위원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윤후덕 위원 여당 간사가 이 자리에 오셨었고 수석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여당 간사께서도 받아들여 주시고 위원장님께도 보고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의결한 것으로 그런 과정이 절차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리뷰를 하거나 그런 과정은 실제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기호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결이 끝나고 나서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합의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김성찬 위원 잠깐 제가 말씀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의견들을 저쪽이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여라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넘어간 거지 합의했다는 부분들은 조금……

○위원장 정두언 잠깐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절차 문제보다도 사실 내용이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간사님, 진성준 위원님, 그 부분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까? 나는 잘 이해가 안 가……

○진성준 위원 아니, 뭐 민감할 것은……

○윤후덕 위원 아니요, 저는 무척 민감합니다.

제 지역구는, 제가 점심식사 때도 사적인 자리지만 말씀드렸지만 제재수단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접경지역인 임진각 지역의 황진하 위원님하고 같이 파주의 국회의원으로서 늘 대북전단 살포나 대북방송 문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제 심정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기보다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제재수단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서 특정한 방법까지 표기하면서 정부 방안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정부가 이러저러한 국제적 제재 방식과 국내적·군사적 제재 방식을 다 합쳐서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은가 그런 판단하에서 이 문구를 좀 빼자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 여당 간사께서도 같이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것이 간사 간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 간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이해는 하는데 아마 또 이렇게 표명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역할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차 문제 이런 것을 여기서 따지고 그러면 너무 우리가 불필요한……

○윤후덕 위원 아니, 오늘 확성기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방법 중의 하나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굳이 계속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그것을 특정해서 제재 방식에, 이를테면 제재 방식을 드러내는 유일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촉구하는 것은 굳

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그런데 오늘 질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거의 대종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결의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을 떠나서 제 생각은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 간사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어필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윤후덕 위원 정부도 신중한 제재 방식에 대해서 위원회가 또 특히 제가 그런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크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접경지역의……

○위원장 정두언 그게 논란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논란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마치 국방위가 그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또 야당 입장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성준 위원 아니,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또 그 핵실험된 핵무기의 수준이 가늠하기 아직 어려운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우려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상응하는 대응조치들을 철저하게 취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뢰 도발 사건으로 이어진 확성기 방송 또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 도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아주 높아졌었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서 겨우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져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던 것 아닙니까? 당시 그런 영향으로 34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불안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확성기 방송의 재개의 문제를 배제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면 기왕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은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 그것을 구태여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라라고 하는 촉구를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부적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반대다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알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원만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윤후덕 간사나 진성준 위원 발언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마당에는 절차적인 것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차적인 것은 하자가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필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제가 늘 야당 편을 든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불가피 절차적인 것을 따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성준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조정되어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그냥 앉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윤후덕 위원 그래서 이어서 이 제목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려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됐잖아요.

○위원장 정두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회의 중에 나왔던 것은 전부 다 의견을 물었고 회의 중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의견을 안 물어본 것은 쟁점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 쟁점이 되는 것을 그렇게 넘어가는…… 자구수정하자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양 간사한테. 그러니까 쟁점이 있었으면 제가 그것을 정리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까 결의한 대로 그 내용을 그냥 넣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진성준 위원 저는 간사 간에 얘기가 돼서 자구수정으로 처리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그렇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보고가 안 됐고, 쟁점이 안 된 사항에서 그것은 표현은 안 했지만 원래 자구수정하는 것은 쟁점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쟁점이 된 사항은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쟁점 삼아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두언 (웃음)

지금 장관님 NSC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두언 아니, 사실 그렇지 않은 문제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뭐라고 또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진성준 위원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정두언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충분히 또 어필을 하셨으니까……

○윤후덕 위원 그러면 수정된 결의안 자료를 왜 제시를 안 해 줬어요?

○위원장 정두언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윤후덕 간사께서 널리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근 위원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오늘 이 결의안은 우리가 오전 내내 여러 가지 토의를 해 가지고 그 토의된 내용을 기초로 했는데 우리 진성준 위원님께서 남북 간에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또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군사적 긴장 관계는 지금 북한이 조성했거든요. 우리가 무슨…… 북한이 저렇게 엄청난, 한반도 차원을 넘은 범세계적 차원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에 맞부딪친 우리 대한민국 국방위원회의 결의안이 그저 밋밋하게 '규탄한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정도로 해서 좀 강력한 내용을 담아서 정부에다 주면 그다음에 민생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일이지 우리가 정부에다가 권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에서 이것까지 빼 버린다면 결의안을 채택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넣어서 보내면 그 결정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정부에서 할 일까지 미리 걱정을 해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정두언 자, 진성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저 양해 안 됩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언 기회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위원장 정두언 그러면 절차 문제를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한기호 위원 저도 접경지역에 4개 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전선 전체의 반을 제가 지역으로 가지고 있는데 윤후덕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저도 충분히 똑같습니다.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접경지역인데?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그러나 이것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우려를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걸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위원장 정두언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번질까 봐 제가 자꾸……

○한기호 위원 또 북한이 핵무기, 핵실험을 했다는 이 중차대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우리가 고조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핵실험한 것보다 더 군사적 긴장 고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면 껍데기입니까?

○위원장 정두언 저는 이 논란이 자꾸 길어질수록……

○진성준 위원 아니, 그래서 유엔 제재를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중단하고 보류한다고 하는 정부의 대응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한기호 위원 아니, 이걸 넣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넣으면 되지.

나도 접경지역이 지역구예요. 누구보다도 더 이것에 의해서 피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기는.

○진성준 위원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대북 방송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봐 왔지 않았습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북한이 지금 핵실험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진성준 위원 핵실험하는 데 방송하는 것으로 대응이 됩니까?

○한기호 위원 그러면 방송도 안 하면 뭘 합니까?

○진성준 위원 다른 방안들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한기호 위원 다른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진성준 위원 그걸 구태여 우리가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방안이?

○진성준 위원 아니, 지금 유엔 대북 제재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한기호 위원 유엔만 탓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껍데기입니까?

○진성준 위원 유엔만 탓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줄여 가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요.

○한기호 위원 발생하면 이기면 되지요, 전쟁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 정두언 자,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만하고요.

○진성준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초안을 받아 들자마자 우리 윤후덕 간사님께 가서 이것은 불필요한 말씀인 것 같다, 이것을 들어내고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침 그 말씀을 드릴 때 김성찬 간사께서 오셔 가지고 서로 합의가 되어서 저는 그렇게 의결된 줄로 알고 아무런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초안이 다 배포된 상황에서 의결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결 절차를 밟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해 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진성준 위원 그렇게 양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라니까요.

○위원장 정두언 그러면 제가 절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차적으로는 그걸 넣고 결의한 게 맞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절차상으로는 양해가 된 것으로 알았다니까요.

○위원장 정두언 그러면 제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논란이 길어질수록 더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진성준 위원 글쎄, 그런 점에서 왜 그렇게 구태여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부가 스스로 합의했던 합의서를 북한이 파기한 상황이 왔는데 정부가 알아서 대응하지요.

○송영근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구태여 그걸 빼려는 거냐 이거예요, 나는.

○진성준 위원 저는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자,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구태여 이걸 빼려고 그러냐 이거야. 참나……

○위원장 정두언 자,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참고하시고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면질의는 윤후덕, 김성찬 위원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광진	김성찬	문재인	백군기
손인춘	송영근	안규백	유승민
윤후덕	정두언	진성준	한기호
홍철호	황진하		

○청가 위원(2인)

權垠希　주호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전문위원	권기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한민구
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기획관리관	김인호
정책기획관	장경수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서욱
북한정보부장	이영기
전략정보부장	김선욱

【보고사항】

○의원 당적 변경

의원명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연월일
權垠希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탈당	2015. 12. 28

○의안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0 이자스민·황주홍·유승민·인재근·윤명희·정희수·서상기·이한성·권성동·양창영 의원 발의)

11월 23일 회부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1. 30 김광진·전병헌·황주홍·유승희·김을동·부좌현·윤후덕·박민수·이완영·설훈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5. 11. 30 유승민·김세연·민현주·정미경·안규백·윤후덕·김성찬·류지영·이종훈·안홍준·조명철·박인숙·신문식·황주홍·정두언 의원 발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5. 11. 30 이종배·김제식·김동완·양창영·안상수·김한표·박맹우·김용남·이노근·이에리사·이정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5. 12. 2 홍철호·윤후덕·정미경·이노근·유승민·김성찬·송영근·김광진·주호영·정두언·한기호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5. 12. 2 홍철호·윤후덕·정미경·이노근·유승민·김성찬·송영근·김광진·주호영·정두언·한기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2. 31 정부 제출)

2016년 1월 4일 회부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5. 12. 2 유의동·류지영·원유철·송영근·이노근·홍지만·신의진·김을동·강기윤·이채익 의원 발의)

2016년 1월 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015. 11. 24 정부 제출)

11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5. 12. 9 송영근·정용기·정갑윤·류지영·정희수·권성동·김종태·한기호·손인춘·황영철 의원 발의)

1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